

# 대학 수시모집은 수능 이후에 해야

박제남 | 인하대학교 입학처장

MB정부 출범과 함께 대입3단계자유화 방안이 나오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이미 수능 등급제는 2009학년도부터 사실상 폐지되고 작년부턴 이름만 남아 있던 논술가이드라인도 폐지되었다. 2012학년도부터 수능 과목이 축소되고 2013학년도에는 외국어가 분리된다. 이러한 일련의 자율화 조치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대책마련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수시 시기이다. 수시 1은 2010학년도부터 없어질 예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현재 수시 2는 몇몇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9월 초에 원서 접수를 받고 대학별 고사는 수시 2-1은 수능 전에 치루고 수시 2-2는 수능 시험 이후에 치루고 있다. 올해의 경우로 예를 들면 9월 8일부터 수시 지원 원서 접수를 받고 수능시험(11월 13일) 이전까지 수시 2-1 대학별 고사가 진행된다. 수능 이후부터 수시 2-2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다가 수능 성적 발표일(12월 10일) 이후 수시 2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2월 18일부터 정시원서접수와 대학별 고사가 진행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모집은 정시모집과 달리 여러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선 불안한 정시 모집 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점한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기 문제로 인하여 수시모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는

주범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시 시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고등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만 해도 학생들은 본격적인 대입은 수능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입학전형 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능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 학생들은 더위를 뒤로 하고 수능을 향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결심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바로 수시 제도이다. 수시 2는 9월 초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이때 진학할 대학을 고르고 입시 전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흐름을 놓쳐 버리게 된다. 책자를 뒤지면서 자신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고르다가 또, 인터넷으로 자신이 갈만한 대학의 입학 전형 제도를 저울질 하다가 들뜬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9월 초부터 2~3주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대여섯 학교, 심지어 열 곳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시키다보면 그때부터는 공부보다는 자신이 대학을 잘 골랐는지, 친구들은 어느 대학을 썼는지 궁금하게 된다. 9월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별 고사가 언제인지만 손꼽고 있고, 면접을 치루고 돌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합격, 불합격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교실은 술렁인다. 수시 2가 시작되는 9월 초부터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벽이 허물어진 건물처럼 입시 바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된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은 수시전형을 수능 이후에 하는 것이다. 수시에서 필요한 대학별 고사를 치를 만한 일정은 수능과 정시 사이 한 달 동안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9월부터 교실에 행하는 입시 바람을 조금이나마 늦게 불도록 해서 적어도 수능 때까지는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인 수능으로 인해 모든 고등학생이 영재처럼 3년 동안 공부할 것을 대체로 2년 만에 끝내고 나머지 1년은 문제 풀이 복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수시 일정을 뒤로 미룸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붕 뜬 상태에서 보내게 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시 전형을 수능 이후로 미루는 것은 고등학교 교실을 진정시키는 효과와 함께 1년 내내 입시 관리업무에 시달리는 대학의 업무 경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필 · 자 · 소 · 개

### 박제남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이학석사학위를, Univ. of Iowa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Univ. of Tennessee, Knoxville의 수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 및 입학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The general theory of splitting multiplicative sets", "Strongly primary ideals", "Lecture Notes in Pure and Applied Mathematics" 외 다수가 있다.